



GP USA 본부소식 (3월-5월)

OFFICE UPDATE (March - April - May)

본부 RE-ORIENTATION

본국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Re-Orientation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사들의 현지상황을 나누고 선교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본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며 지피 선교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 교육을 받습니다.

아울러 본부에 대한 바램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선교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부터 5월에 걸쳐 4 차례 본부 Re-orientation 이 진행 되었습니다 (허창식&허성분 / 함제임스&함린다 / 윤재용 / 김바울)

2022 상반기 이사회 (5/9 ~ 5/11/2022)

팬데믹 이후 첫 대면 모임으로 버지니아 헬로십 교회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현지용목사담임) 2022 상반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배선호, 이영찬, 조용중, 유명기, 양성일, 김대영, 안창호, 김영진, 현지용 이사 참석. 참관: 변한나 선교사)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는 난민사역과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선회에 안에서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안창호 이사께서 GP-USA 의 Business as Mission 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COET (Council of Entrepreneurial Mission) 의 훈련과 사역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보내기

미국과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 부모님들 32 분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미국본부를 대신하여 수고해주신 지피 코리아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원소식

- 유에스터(일본) :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local church 에서 3 년동안 영어수업과 주일학교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2019 ~ 2022)
- 장례식:김칠백 선교사(태국) : 모친상 3/2/2022 모든 장례절차는 한국에서 치뤄졌습니다.
- 조금심 선교사(V 국) : 모친상이 3/26/2022 에 있었으나, 사역지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선교지 복귀 : Frank & Sara Pyon (V 국) 께서 3/16/2022 복귀하셨습니다.



정금태&이복래 (파라과이) / 안성원(인도네시아)선교사께서 KWMF (한인 세계선교사 대회) 참석후 본부 방문을 하셨습니다

허익현&김영중 /김은진(멕시코) : 목회자를 위한 가정 교회 컨퍼런스 참석후 본부를 방문하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태 김경숙 선교사- 인도네시아 비전트립



2021 년에 GP USA 선교회에 허입이 되신 김정태/ 김경숙 선교사님이 지난 3 월부터 5 월까지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시고 차기 사역지로 인도네시아를 확정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됩니다.



안중안 신학교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1986년 설립한 “안중안” 신학교에서 아침 7시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고 1년 교회 실습 과정을 마치면 목회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빈민촌에 세워진 개척교회 - 반따르 거방 교회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동네 주민 7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슬림 동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무허가 교회이고, 교회 이름이 적혀진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반둥 고아원

반둥은 자동차로 자카르타에서 두시간 거리, 큰 기대를 가지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도(India)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20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센터 방문

카스트(Caste) 제도가 폐지 된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인도 사회의 밑바닥까지 인도인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계급제도, 계급이 다르면 결혼은 물론이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문화, 그래서 인도인들은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래사람 위에서 군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쉽은 섬기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형제의 발을 씻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